

성탄절 메시지

최상의 행운(요 3:16)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대체로 모든 사람은 “살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치거나 병들면 힘써 치료합니다.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기피하고 안전을 도모합니다. 모든 사람은 “살되 오래 살기”원합니다. 적절한 영양섭취와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체로 동물들이 성장기의 6세 이상을 살지 못하는 것에 비추어 사람의 성장기를 20세 전후로 보면 120세를 최고 수명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

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정정하게 살았습니다. 갈렙은 거인족인 아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기점으로 달리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여 용감하게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 85세였습니

다. 노화를 늦추는 것과 장수를 위해 오늘날 의사들은 다 병면의 연구와 실험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공기를 호흡함으로써 살아갑니다. 공기 중의 산소는 건강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산소가 환원으로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세포 호흡에서 산소는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히 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산소는 체내에서 약 100초 이상 머무르지만 활성산소는 불안정하여 체내에서 100만분의 1초에서 10억 분의 1초 동안 생장다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이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강해서 세포막을 공격해 세포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DNA의 손상을 유발합니다. 세포에서의 신호 전달 체계를 망가뜨리거나 면역력을 저하시키므로 당뇨병, 동맥 경화, 암 등을 유발하고, 세포의 재생을 막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젊은 때에는 활성산소가 조금만 발생하여도 활성산소를 분해하는 항산화 방어계가 작용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년층부터는 항산화 효소가 적게 생산되고 여러 생리 기능이 떨어지는 관계로 활성산소의 해를 받기 쉬운 신체가 됩니다. 활성산소는 인체에 집인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유전자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체내에 발생한 활성산소는 분해해야 합니다. 유전자를 포함하는 염색체의 끝부분에는 모자처럼 붙어있는 ‘텔로미어 Telomere’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정보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DNA가 복제될 때 염색체 끝이 바깥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DNA가 소실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세포분열이 거듭되면서 텔로미어는 점점 짧아지고 텔로미어가 일정 길이보다 짧아지면 세포는 노화되었다고 판단하고 분열을 정지하거나 스스로 죽습니다. 이 때문에 텔로미어는 생물의 수명과 노화의 비밀을 밝힐 핵심 열쇠로 취급됩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면 세포의 수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시켜 세포의 수명을 늘리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발표도 있지만 아직은 충분한 임상결과가 없습니다.

UN에서 전 세계에 걸쳐 사람들의 체질과 평균수명에 대하여 측정된 결과 연령 분류의 표준에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사람의 평생연령을 다섯 단계로 나

누어 발표하였습니다. 17세까지는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는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으로 분류했습니다. UN의 이러한 발표는 더 오래 활동하고, 더 오래 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것인 듯합니다. 진시황제가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려고 애썼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진시황제가 가졌던 소원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과 방법이 각양각색일 뿐입니다.

사람은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는 바람에서 더 나아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개념은 교육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개념과 욕망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인식과 바람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임

“그 다음은?”하고 질문했습니다. 그 청년은 더 이상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부자가 한숨어 말했다 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였습니다. 죽음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대비하지 못한 삶이란 사실 무의미하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추석 명절, 설 명절, 생일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세월이 아주 더디게 간다고 느낍니다. 청년이 지나면 별로 일한 것도 없이 한 기간이 지나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년 이 되면 덧없는 세월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지난날들이 흡사 잃어버린 세월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이 세월에 대하여 같은 감상을 가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로 그러합니다.

노년이 되면 죽음과 죽음 다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누구나 80세, 90세가 넘도록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연령을 묻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음과 죽음 ‘그 다음’을 위한

어떤 행운은 도리어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하위복(轉禍爲福)이니 새옹지마(塞翁之馬)니 하는 교훈적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행운 자체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는 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빼앗길 수 없고 변동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얻는 행운이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선택으로 이러한 행운을 가질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 행운을 소유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행운에 대하여 듣는 것도 싫어합니다. 들려주면 필박합니다. 그 이유는 영생의 고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또한 멸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 하였습니다. 여기에 ‘목숨’ 이라고 번역된 원어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 사람의 일생에서 영생을 얻는 행운보다 더 큰 행운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놀랍고 신비로운 행운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행운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최상의 행운입니다. ”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얻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건강이 목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적 생명 즉 영생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마 8:35)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육신의 생명을 잃는 것도 불사(不辭)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영생은 온 천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않으면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합니다. 죄인은 어떠한 방도로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책 하나뿐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형벌을 받아 피 흘려 죽는 대속의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므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길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조화(調和)되어 야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며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공로나 행위로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교만과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기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은사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가져 주는 것입니다. 영생의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 하였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멸망받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러 있느니라”(요 3:3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요 3:16).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듣게 되는 소식 중에 이보다 더 복되고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이한 소식은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불쌍합니다.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더욱 불쌍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말씀 없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멸망 받을 나를 구하려고 영광을 버리신 그 사랑 예수님 사랑은 참으로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오 예수님 사랑은 참으로 놀라워 놀라우신 그 사랑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 사랑 얼마나 놀라워 나의 일생 그칠 날이 없을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예수님 사랑은 참으로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오 예수님 사랑은 참으로 놀라워 놀라우신 그 사랑

사람의 일생에서 영생을 얻는 행운보다 더 큰 행운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놀랍고 신비로운 행운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행운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최상의 행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면서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시설의 방역 패스 미적용은 유지해야

예배에서 방역 패스 적용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부가 12월 6일부터 적용하는 <특별방역대책조치>에서, 당초에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백신 접종 완료자) 미적용 시설(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 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내 스포츠 경기장, 실내 체육시설, 숙박 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실,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도 포함)로 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가 6일 오전에 한 백브리핑을 통하여 ‘종교시설 방역 강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는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에서 ‘방역 패스 적용 시설’로 변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약에 정부가 또다시 종교시설(교회)에서의 예배 제한을 이런 식으로 규제한다면 예전에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불균형적으로 현장 예배를 금지하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다시는 이런 종교탄압이 없어야 한다.

교회만큼 철저하게 방역을 함에 선도적으로, 모범

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교회는 선도적으로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발상으로 교회를 억압하려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감염자가 나온 것 때문인데, 처음 감염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백신의 효용이 문제인데, 백신 접종 완료자로 예배 참석을 제한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교회 안에서의 방역 방법을 강화하고 철저히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배자를 함부로 제한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한국교회는 지난 2년간 정부가 강제적으로 예배를 제한한 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개인 신앙의 퇴보와 교회 공동체의 영적 자산을 잃는 손실을 입었다.

정부는 기독교계(종교계)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협력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발파로, 전에 하던 것처럼 종교에 강제성을 띠고 탄압하거나 종교 활동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만큼, 훌륭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없다.

한국교회도 이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개인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교회 시설에 대한 방역에서도 기민함과 확실함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한다.

-한국교회언론회

노인복지 향상 및 노인 선교에 앞장

대한노인기독교연합회, 설립 감사예배 드려

대한노인기독교연합회 설립 감사예배가 지난 11월 19일(금)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소재 CCOMM빌딩 루나미엘레에서 드려져 대표회장 김성이 목사(전 보건복지부장관)를 추대하고 노인복지 및 노인 선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대한노인회 지원재단 이사 김병운 목사 사회로 대한노인회 고분 박종철 목사의 대표기도, 자문위원 이귀범 목사의 성경봉독, 아도나이찬양선교단 단장 안형선 목사의 특별찬양 순으로 진행했다.

기갑 전 감독회장 김진호 목사는 잠 16:36 말씀을 본문으로 한 '1백세 시대에 노인의 자세'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공의로 온 길에서 면류관을 얻는다. 노년일수록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계속해 '노년의 삶을 현실에 안



주할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속된 예배는 연신원총동문회 전 회장 김현수 목사의 헌금기도, 대표회장 김성이 목사의 대회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축사(더불어민주당 김선 전국노인위원장 대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축사(영상), 분이주 부전대 이사장의 축사, 전 육

사교장 김충배 상임대표·경우회 강영규 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이날 설립 감사예배는 사무총장 남보석 목사의 기도 후 한기총 전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연합회는 서울 외에 부산·인천·대구 등 광역시와 경남을 비롯한 각도에도 지명조직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전국 245개 시·군·구에 지회를 둘 예정으로 있다.

목회자유가족 자녀장학금 1억 원 전달

진남제일교회, 목회자유가족돕기운동본부에



목회자유가족돕기운동본부(대표 김진호 목사, 기갑 전 감독회장/이하 본부가 진남제일교회(담임 우종철 목사)로부터 1억 원의 목회자유가족 자녀장학금을 전달받았다.

이 장학금은 진남제일교회 성도들이 심시 일반 모든 정성으로 목회자유가족돕기운동

본부를 통해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선교국과 목회자유가족돕기운동본부는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1월 22일 오전 11시 본부 교회에서 후원금 전달 감사예배를 드렸다.

본부 총무 최우성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

배는 사무총장 권종호 목사의 기도 기갑 감독회장 이철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했다.

이철 목사는 엠 2: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 오늘 장학금을 후원한 진남제일교회는 대령교회도 아닌 작은 교회인데도 목사님,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후원해 주셨다. 진남제일교회의 이 귀한 선한 열매가 감리교 전국 곳곳에 열매 맺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목사는 감사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 목사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1억 원을 후원해 주셨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것이 없다.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이 일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정호 목사 대전시로부터 감사패 받아

“지역사회 위해 교회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

새로남교회(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오정호 담임 목사가 대전광역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하태정 대전시장은 새로남교회에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한 기부 활동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 온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옛 충남도청사에 마련된 시청 집무실에서 오 목사에게 패를 전달했다.

지난 11월 16일 전달식에서 허 시장은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께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번에 패를 드리게 됐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한 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라고 말했다.

오정호 목사는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히 새로남교회는 2007년부터 커피의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대전과 이웃을 위해

사회에 기부해 오고 있으며 작년 2020년에는 누적 기부 20억을 돌파했다. 주로 커피 수익금으로 기부했던 단체들은 태안반도 봉사경비, 한국 해비타트, 북한 결핵 환자 돌기, 북한 동포 수제 파쇄 돌기, 월드비전, 고등대학생 장학금, 지역 노숙자 무료급식,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 대전경찰청 경찰가족 한우돌기, 625 참전용사 격려행사, 대전CBS 불우이웃돕기 송년음악회, 서구관내 저소득층,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및 경로당 연말 후원, 보라매공원 성탄터키 조성(서구청) 등이다.

특히 작년 4월에는 한밭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대전 서구지역 내 위기 가정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올해 1월에는 2,000만 원을 후원했다.

‘제15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 개최

한국교회법연구원, 기독교적 윤리의 책임을 지는 신앙의 싸움 필요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이 최근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제15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발제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이효종장로(부이사장)의 인도로 아월식 장로(동합 부총회장)가 기도하고, 김순권 목사(중경총회장)가 본 1:17~20 말씀을 본문으로 '그레도와 그레에도 불구하고의 재판'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교회와 관련한 송사만은 세상과는 달리 어느 누가 보더라도 놀라운 공감을 얻어야 한다"면서 '그레도'의 재판, '그레에도 불구하고'의 재판을 제시했다.

이어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무조건 사랑하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목숨을 보내셨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그 실천적 사랑은 '그레도 사랑했고' '그레에도 사랑하신 것'이라며 "우리 총회의 재판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야 할 시점에 이른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옥주 박사(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가 '본회파의 값비싼 은혜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발제했고, 김영훈박사가 '정당한 교회법 준수의 당위성'과 '총회 헌법의 구성과 주요내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정당한 교회법 준수의 당위성'을 주제로 발제한 김영훈 박사는 "하나님의 법은 최고의 규범이며 국가법과 교회법의 원천이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모든 가치판단의 기본적 원리와 기준이 된다"면서 "장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법과 정당한 교회법 및 정당한 국가법을 준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핵심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울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임으로 준수해야 한다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준수해야 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 준수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 준수해야 한다 △정당한 교회법 준수의 의무를 제시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 펼쳐나간다

미래목회포럼 18회 정기총회 개최…이상대 대표 박경배 이사장 취임

미래목회포럼은 지난 12월 2일(목) 한국기독교연합회관 2층 중강당에서 제1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대표에 이상대 목사(서광성교회)를, 이사장에는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를 각각 선출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오정호 직전 대표의 사회로 사업결과 및 회계 보고, 18회기 대표 및 임원 인준, 회장 분배, 고퇴 전달 및 신임 임원교제 등이 진행됐다.

총회 후 이·취임 및 위촉 감사예배는 부대표 이동규 목사의 사회로 부대표 황덕영



목사의 기도, 전 대표 최이우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취임패 증정 시간에는 박경배 이사장은 이상대 목사에게, 이상대 대표는 박경배 이사장에게 취임패를 각각 증정했다. 직전 대표와 이사장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축사 순서는 지형은 목사(기성 총회장)와 김인환 목사(성은감리교회), 축하 케이크 커팅식은 전 대표 김봉준 목사가 맡았다.

주제별 합심기도시간에는 '한국교회 거룩성 회복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송용현 목사(안성중앙교회), '한국교회 연합과 남북통일을 위해' 설동주 목사(대천약수교회), '대통령 선거와 사회통합을 위해' 윤성민 강남대 교수가 각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구촌선교회, 강현진 회장 취임 예배

이재희 이사장 “캄보디아 복음의 지경 넓혀가겠다”

지구촌선교회(이사장 이재희 목사)는 최근 분당캄발교회(담임목사 이재희)에서 회장 취임식 및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렸다.

지구촌선교회는 국내 및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복음전파에 힘쓰고 있는 곳으로 △캄보디아 성전건축 및 물품 후원 △캄보디아 우물파기 사업 △몽골 성전건축 및 물품 후원 △하와이 선교 △국군 장병 선교 및 물품 지원 △미혼모·한부모가정 지원 △장애인 지원 및 사회참여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이사장 이재희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선교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선교의 사명은 멈출 수 없다. 한평생에 걸쳐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겠다"고 다짐했다.

신임 회장에 취임한 강현진 회장은 "우리 선교회의 목적은 이 세상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오래 전부터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번에 회장으로 세워주신 하

나눔과 이사장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선교회 회원들과 협력해 구제와 선교를 활발히 하고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월드비전, ‘기브어나이스테이’ 캠페인 동참 촉구

홍보대사 이상엽과 함께 전쟁피해아동 긴급구호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영환)이 11월 29일부터 이상엽 홍보대사와 함께 전쟁피해아동의 현실을 알리는 캠페인에 나선다.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쟁피해아동보호 캠페인 '기브어나이스테이(Give a nice day)' 일환으로 캠페인 패키지(책앗긴 아이들)를 오픈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할 계획이다. '기브어나이스테이' 캠페인은 이유도 모르는 총성과 폭력 속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전쟁피해아동을 기억하며, 이들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기획됐다.

이상엽 홍보대사는 연말을 맞아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일상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캠페인에 뜻을 모았다. 앞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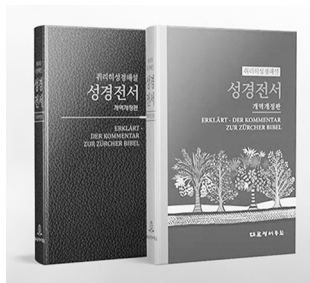
소중한 어린시절을 빼앗긴 전쟁 속 아이들을 기억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캠페인 영상에 직접 출연, 전쟁피해아동의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 관련해 월드비전은 <책앗긴 아이들>

페이지를 통해 정기후원을 시작한 후원자에게 '이상엽 스페셜 에디션 패키지'를 전달한다. 패키지는 '기브어나이스테이' 캠페인의 시그니처 쿷즈인 '하루팔팔'과 이상엽 홍보대사의 손글씨를 담은 인부카드로 구성됐다. '하루팔팔'은 우간다 난민촌에서 아이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착용하는 3가지 색상의 난민등록 팔팔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하루팔팔' 삼색고리는 각각 ▲파란색은 난민 등록 아동, ▲노란색은 영양실조·장애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흰색은 부모를 잃은 아동을 의미한다. '하루팔팔' 인족에는 전쟁피해아동을 지키는 몇 번째 보호자인지 알 수 있는 고유번호를 새겨 의미를 더했다.

‘취리히성경해설 성경 개역개정판’ 출간

성서공회, 한국교회와 사회의 형편에 맞게 편역



해설집을 집필한 40여 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스위스 개혁신교 학자들로, 그 가운데는 목회자나 기관 사역자들도 있다.

이 해설집의 단락 해설 부분을 2017년부

터 18명의 국내 성서학자들이 '개역개정판' 본문에 맞추어, 본문 1, 해설 1의 비중으로 편역하여 한 권으로 엮었다. 이 해설 성경은 각 책의 중심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설 첫머리에 도표를 제시한다.

또한 개별단락 해설에서는 성경의 각 책, 각 본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여러 본문 사이에 차이 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성경 전체와 각 책의 흐름과 짜임새에 비추어 각 단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설명한다.

특히 성서학의 최신 연구 결과뿐 아니라 최근의 지리학적 고고학적 배경을 해설에 담아, 독자들의 설교 준비와 신학생들의 연구, 일반 독자들의 성경 이해에 도움을 준다.

제68차 총회 제30회 임원회

교회발 감염 띄우는 언론, 정부 경계

국가안보를 위해, 한미동맹강화, 차별금지법 저지...

신재영 목사
예하성 총회장
새길교회 담임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30회 임원회가 지난 11월 26일(금) 오후 3시 다중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방역시대에서 위드 코로나를 맞았으나 확진자가 5천여 명이나 되는 등 코로나 19 상황이 매우 위중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영상으로 열린 다중영상회의에서 각종 보고와 회부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인도로 회계 김건수 목사의 대표기도와 찬송 후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 각종 차별금지법 제정반대를 위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예배회복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기도, 부총회장 정의섭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총회장 신재영 목사는 마 22:3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예수 잘 믿고 말씀 그대로를 생활 속에 실천하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역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또한 “2년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정부 당국의 불법적인 제재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어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음을 안타까워하는 상황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하여 교회발 감염확산은 막아낼 것”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교회를 회복하려는 세력들과 맞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임원회는 총회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서기 정영진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 이경진 목사는 보고사항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각종 총회 일정과 행사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의 추이를 살펴가면서 총회 일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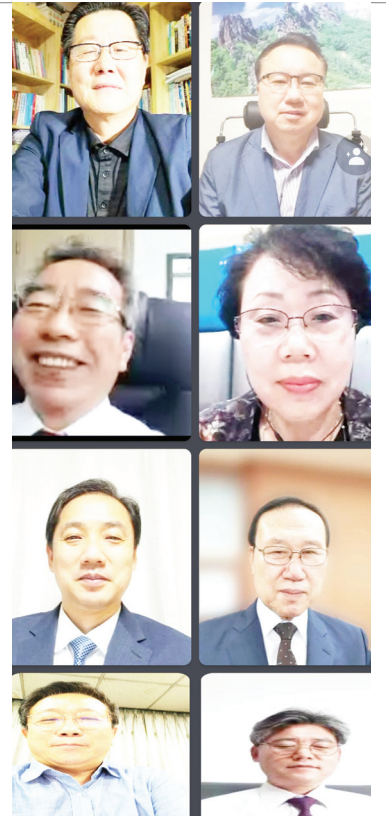
2022년도 목사고시 대상자 서류심사 후 목사고시 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한편 2022년 목사고시 오리엔테이션은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조정되는 대로 일정을 정하여 통보하기로 했다.

이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건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 전출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등의 내용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임원회에서는 노숙자선교회 겨울난방비 지원 결의하고 (사)전기총연합 등 연합기관과 함께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국가간담기도회에 부산지방회를 비롯 전국지방회에서 적극 참여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회 대면예배 재조정과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닌 지도자 선출을 위해, 한미동맹관계 철저히 복원,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국가안보를 위해, 공산주의 타파 등을 위해 한미동맹으로 기도했다.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져만 가는 피로감으로 힘들어 하는 교회들을 힘이 되는 대로 돌보기로 했으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정부 방역



당국이 교회에 방역을 빙미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대면예배를 드리고 이에 대해 교회발 감염소식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코로나이전 임원회에서의 기념촬영 광경

2년 여 만의 가을 야유회 사랑의 교제

영남알프스 일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풍광 감상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11월 22일(월) 기온이 갑자기 푹 떨어져 초겨울의 차가움이 느껴지는 가운데 약 2년여 만에 가을 야유회를 가졌다.

회원들은 영남 알프스 일대를 관광하면서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들이 시원하게 풀어지는 것 같은 좋은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 안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날 월요일이라서 모두에게 더 큰 은혜가 있었다.

부산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짧은 격려와 기도로 일정을 시작한 회원들은 두 번의 식사와



밀양에서 유명한 카페에서 사진도 찍으며 은혜로운 대화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고난중에 세워지는 나라

강원지방회

강원지방회(회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11월 25일(목) 오전 11시 원주샘물교회(담임 박규희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이성은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성백달 목사(공촌교회)의 대표기도, 박규희 목사(원주샘물교회)의

산상 22: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이돌람 공동체'라는 제목의 설교 김중에 목사(군업리교회)의 헌금기도, 지방회 부회장 박성윤 목사(흥천평강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코로나 종식을 위해, 교회부흥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월례회에서는 회원점명과 총무서기 보고, 재무보고, 회계보고 후 기타 안건에 대해 토의하고 각종 회부를 처리한 후 월례회 모든 순서를 마쳤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파 다짐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고현진 목사)는 지난 11월 23일(화) 오전 11시 부안순복음교회(홍종학 목사 시무)에서 월례회를 갖고 먼저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훈배 목사(꿈이있는교회)의 사회, 재무 전숙희 목사(은혜와사랑교회)의 대표기도, 부회장 홍종학 목사(부안순복음교회)의 요 5:24-25 본문으로 '믿음의 명제'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홍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 정말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다”고 전하면서 지난날, 병마로 사형 선고 받고 죽음만을 기다리던 자에게 성령님이 감동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간증을 전함으로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이어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고현진 목사의 진행으로 각종 회부를 처리하고 부안순복음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오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눈 후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공주 은혜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드려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박용열 목사)는 지난 12월 5일(주일) 오후 4시 은혜순복음교회에서 담임목사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지방회 서기 김진현 목사의 찬양인도에 이어 부회장 서성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감사예배는 증경회장 남갑수 목사의 기도, 부회장 김효신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박용열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담후 2:15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있음에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것은 그동안 서 목사님의 주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의 결과’라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

아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복음전파에 열심을 갖자’고 당부했다.

이어 회계 표현자 목사의 헌금기도와 순복음부흥교회 이정수, 이해정 집사의 특송, 사회자의 광고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는 지방회장의 담임목사 공복식이 있는 후 서경오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사가 있었다.

서 목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국내외 10개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평택과 천안과 공주에까지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다”라며 앞으로 더 열심을 다하여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로 후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제3부 순서로 증경회장 정석현, 김기인, 최병림 목사의 축사와 전 부총회장 조원익 목사의 권면의 순서가 있은 후 공주 은혜순복음교회 은퇴 목사인 조철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 후에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생명의 말씀



정 의 섭 목사

· 예하성 부흥회장
· 성암순복음교회 담임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의 방법이 오직 한 가지 밖에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들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여인 가운데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인 가운데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성탄준비

(눅 1:26-31)

첫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가와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한 여인 마리아에게 다가와 선포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오직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영광과 축복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

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낼 수 있었던 것도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것은 전적으로 믿을 때문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사배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눅 1:34)고 반문하였습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가브리엘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눅 1:37)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천사에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자신의 믿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복중에 아이가 뛰어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믿은 여자가 복이 있도다.”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잉태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bris 기자 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셋째,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선택하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심에 감사한 찬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4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도다 일컬으리코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분명하신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을 때에도,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눅 1:38)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집종은 굉장히 낮은 계급의 여자 하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겸손함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겸손함이 온 인류의 구원자를 잉태게 하였습니다. 결코 교만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예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지금도 교만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만지 못합니다.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받을 것입니다.

동 정

한동대, 신임 총장에 최도성 교수



한동대학교 제7대 총장에 최도성 전 가천대 국제부총장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한동대 학교(이사장 이재훈)는 지난 12월

2일(목) 이사회를 열어 최도성 전 가천대 국제부총장을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다. 최도성 신임 총장은 가천대 국제부총장 등을 역임한 뒤, 가천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교회 재개발 세미나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소장 이봉석 목사) 주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교회 재개발 세미나’가 11월 30일(화)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장 이봉석 목사가 자신의 교회 재개발 경험을 살려, 공공주도형·민간주도형 재개발 특성을 소개했다.

최시원, 유니세프 1억 약정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는 최근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이 교역 후원자 모임인 ‘유니세프 아너스 클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최시원은 이번 아너스 클럽 가입을 통해 1억 원의 기금을 약정하며,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금을 사용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조용근 이사장 장학혁신 대상



석성장학회는 “조용근 이사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유대한국민대상”에서 장학혁신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1월 30일(화)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장을 지낸 조 이사장은 지금까지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3,700여 명에게 28억 원 상당의 선형 장학금을 지급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국민 간 증오를 조장하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11월부터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그동안 묶였던 많은 사회적 활동과 규제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완화되었다.

반면에 코로나 확진자가 1일 5,000명을 넘어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거기에서 최근에는 아프리카 쪽에서 변이종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중앙 일간지인 조선일보가 12월 2일 보도를 한에, 가장 먼저 ‘목사 부부’를 강조하였다(그 이후 다른 언론들도 따라서 보도함) 코로나는 누구든지 걸릴 수 있고 변이종에 대한 우려와 논란은 지날해부터

시작되어 언제든지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바, 확진자가 목사라고 하여 언론이 굳이 ‘목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목사는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인데, 걸린 것이 희귀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또 목사는 걸려서는 안 되는데, 걸린 것이 안타깝다는 것도 물론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 종교인의 직함을 굳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특정 종교인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는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

더군다나 ‘목사’라고 할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 목사들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지 않

고, 마음대로 세계 여행을 다닌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보도된 ‘목사’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다.

그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인데, 아프리카에서 선교 콘퍼런스에 참여하고 귀국한 것인데, 이를 굳이 ‘목사’라고 강조한 것은 기독교와 목회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도록, 대단히 의도성을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보도에 대하여 목자들은 흥분한다. ‘역시 또 목사네, 아주 이것들이.’ 참 더러운 목사구나. 목사가 돈도 많다. 부부가 아프리카까지 여행하고.’ ‘참으로 못된 목사 부부. 6일간이나 싸들고다녔군, 오미크론

전파하고.’ ‘무책임한 목사야 네 믿음은 자유지만 얼마나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줘야 직성이 풀리겠니’ 종교전파가 아니라 코로나 전파하고 다녔네’ 등등.

그야말로 기독교와 목사를 비난하는 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이것이 책임감이 있어야 할 언론에서 노리고 원하는, 국민들의 원성(怨聲)을 유도한 것인가?

반면에 이런 중앙 일간지의 보도태도를 비난하는 댓글도 있다. ‘오늘 조선신문 8개를 봤다. 다른 신문은 나이지리아 다녀온 부부라고 호칭하는데 유독 조선일보만 목사 부부라고 직업을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부절한 직업정신인지, 또 종교계나 반감을 유발하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꼭 목사라고 꼬집어야 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굳이 신분을 밝히서 문제를 커 보아게 만드는 거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약질적이다’ ‘목사 부부? 제목 따는 거 바라. 사업하는 사람이면 사업자 부부라고 제목 따냐?’라고 비판한다. 아마도 이 언론이 ‘목사’를 강조함으로써 목자들은 목자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눈여겨볼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특정 종교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게 만들었다고 하여, 그 언론이 좋은 언론일까? 우리는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 국민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의 피해자인 선교사를 목사로 부각(浮擧)하여, 기독교의 지도자를 비난하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언론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바른 책무가 될 것이다. 언론의 권위와 역할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언론이 어떻게 병폐적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①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청호오일, 선택리향오일, 유칼립투스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려줍니다.

② 전나무 참편한근육마사지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도향오일, 상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두송열매오일, 꽃박하오일, 리몬그라스오일, 캐모마일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선택리향오일, 워터그린오일
• 사용법 : 어깨, 종아리등 통치고 통증이 있는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운동전후/운전시/수험생/컴퓨터작업시)

③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전나무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 사용법 : 두피에 뿌린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④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로써 마음과 몸을 정화합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게 등에 한두방울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⑤ 전나무 숲 블렌딩오일 (10ml)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렌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유칼립투스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게 등에 한두방울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⑥ 맑은호흡 캔들 (130g)

최고급 천연소이왁스에 전나무오일을 첨가하여 사용시 전나무숲길에 있는듯한 피톤치드를 선사합니다.
• 원재료 : 소이왁스, 전나무오일

⑦ 전나무 오리자발 비누 (100g)

보습성이 뛰어난 코코넛오일과 세어버터베이스에 전나무오일과 전나무분말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코코넛오일, 세어버터, 전나무오일, 전나무분말등

⑧ 전나무 센서티브 비누 (100g)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등을 첨가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 사어버터, 마카데미아씨오일등

⑨ 젤뮬케어 림밤 (15ml)

인술이나 건조해지기 쉬운 신체 어느부위든지 발라주어 부드럽고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위트아몬드오일,아보카도오일, 비즈왁스, 자몽껍질오일, 오렌지껍질오일등
• 사용법 : 인술, 손, 발, 각질부분등에 발라줍니다.

⑩ 전나무워터 (180ml)

전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100% 전나무 워터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워터
• 사용법 : 화장실, 부엌등 향균이나 향취가 필요한곳에 뿌려줍니다.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지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 FA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한기총·한교총·한교연, 차별금지법 반대 2차 성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한기총),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한교총),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이 1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세 기관은 이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사에서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은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문 대통령은 2017년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는데, 지난 11월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추사에서 대통령 인기 말임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세 기관은 “대한민국에는 이미 장애인, 난민, 인종,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 금지법이 여러 개 제정되어 있다”며 “2020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1,000명 중 2명만이 그것도 온라인에서 경험했다고 조사됐다. 그런데도 동성애 관련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을 단독으로 만들기에는 민망하기에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짚수라고 본다”고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제2차 공동성명】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조항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사에서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은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사실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017년에 사회적 합의가 총



한교연, 한교총, 한기총의 주요 관계자들이 얼마 전 연합기관 통합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서 연석회의를 갖던 모습.

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는데, 지난 11월 2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추사에서 대통령 인기 말임에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연합이 차별금지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한국교회 뿐 아니라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장애인, 난민, 인종,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여러 개 제정되어 있다.

2020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1,000명 중 2명만이 그것도 온라인에서 경험했다고 조사됐다. 그런데도 동성애 관련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을 단독으로 만들기에는 민망하기에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짚수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 같은 발언을 한 의도는 무엇이며, 국회에서조차 차별 금지법 관련 국민 청원 심사를 2024년 5월까지 연기시켰음에도 논의를 재점화시켜 국민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자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지

알 수가 없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권인숙, 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대다수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게 윤리 도덕과 가정과 자유를 파괴하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정치인으로서의 마땅히 갖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선택이다. 차별금지라는 하울 좋은 명목하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의 독소 조항을 삽입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며 방종을 범으로 보호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호도하지 말고, ‘동성애 보호법’이라고 분명하게 명명하길 바란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남자페미니스트와 여자사위를 얻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하는지를 묻고 싶다. 성정은 분명히 하나임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으며, 동성애는 단순한 ‘경향’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된’ 행동에 대한 문제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자의적으로 행하는 죄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면, 법으로써 마땅히 추구해야 할 공의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남자가 “자신은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자 목욕탕에 서슴없이 들어가도 그러한 남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남자를 막은 직원과 사임장이 처벌을 받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동성애, 동성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제2회 국가비상긴급기도대성회

12일 세계로금란교회서

임현수·정기영·고병찬·주성민 목사, 황교안 전 총리 강사로 나서

국가비상긴급기도운동본부가 12월 12~15일 세계로 금란교회(주성민 목사)에서 제2차 국가비상긴급기도대성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회에서는 임현수 목사와 정기영 목사, 고병찬 목사, 주성민 목사가 설교자로 나서며, 황교안 전 총리도 함께한다.

임현수 목사(도론토르빛교회)는 2015년 1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31개월 만인 2017년 8월 국적으로 풀려난 사람으로서 그동안 보고 겪었던 북한의 실상을 낱알이 폭로하며 속히 남북통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고병찬 목사는 코로나 시대 대면예배 중지를 종교의 자유의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현 정부의 잘못을 꼬집을 방침이다.

임영문 목사와 나영수 목사는 ‘반교회정책과 진북한 성향을 띤 현 정부의 반기독교정책 및 신앙의 자유’에 대해 설교하며, 황교안 전 총리는 파주부정선거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박원영, 원성웅, 박종호, 이예경, 김종주, 김영일, 박덕근, 윤상운 목사 등이 함께하며 긴급기도회를 인도한다.

주최 측은 “남측 부산으로부터 대구, 광주를 거쳐 임진각을 바라보는 복단에 위치한 세계로금란교회에서 기도회를 갖는 것은 제2의 니콜라이교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번 기도회는 남북통일이 멸공이나 승공, 평화통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기도를 통한 영적인 통일로 가는 하다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특히 “세계로금란교회에서 눈물의 집회를 통해 영적인 통일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국가비상긴급기도회를 통해 화해함으로 남북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기도대성회는 사단법인 나눔과기쁨재단, 교회본질에비회복운동본부, 파주시민예측단체, 파주자유목회자협의회, 남북통일미쓰리국제기도재단 등이 함께 협력한다.



이러한 해괴망측한 한국 국민의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이 수 없는 일들을 허용하라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중단하길 촉구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내가 원할 때 남지도 되고, 여지도 되며, 오늘 여자였다가 내일 남자가 되는 ‘성별 정체성’까지도 보호하려는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사람답게,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피해를 받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과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담하고 치료하는 방향으

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교회연합은 ‘건전하고 올바른 성 정체성 및 성의식’을 통해 전통적인 사회적 질서와 통일을 수호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과 관용으로 보듬으며, 이들이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며 기도할 것이다.

2021년 12월 0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대표회장 김현성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문화마르크시즘의 차별금지법 제정 전략 논평

동성애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은 건강한 시민사회에 대한

문화마르크시즘의 전복전략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7번에 걸쳐 제정이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진영은 집요하게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좌파진영은 의식하든 않든 법률제정 시도는 일관된 문화마르크시즘의 전략에 속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낸으로써 올바른 인간의 성윤리가 확립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화마르크시즘의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겠다. 문화 마르크시즘의 전략을 올바르게 이해한 후에 그것을 극복할 대응전략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대응전략은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살롱나베는 차별금지법이 문화마르크시즘의 전략이라는 측면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1. 차별금지법은 ‘자유에 대한 배신’ ‘교육독재’ 그리고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잔학’이다. 차별금지법은 문화마르크시즘(Kulturmarsismus)의 기획과 전략이다. “교육독재로의 긴 행진”(Der lange Marsch in die Erziehungsdictatur)이라는 제목으로 독일 보수주의 사상가 바이스만(Karlheinz Weißmann)이 새로운 사회주의 언어집결인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해서 설명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마르크제는 칼 마르크스가 예언한 공산주의라는 “자유의 제국에 대한 준비”로서 먼저 “부자유의 단계”(Phase der Unfreiheit)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부자유 단계에서는 “교육독재”가 필요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문화마르크시즘은 시민문화들

동성애 향유, 결혼 및 가정 철폐 등 법제도적으로 길들이는 문화적 전략을 실행한다.

마르크제는 자유의 제국인 공산주의의 완성 이전에 그 전단계로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임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마르크제의 주장은 미국과 독일의 좌파 학생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사유는 사회주의 사상의 아버지인 장 자크 루소에게서 거슬러 올라간다. 아시아 벌린(Isaiah Berlin)은 장 자크 루소의 ‘자유에 대한 배신’(Betrayal of Freedom)을 비판한 바 있다.

좌파 학생운동권은 이러한 마르크제의 주장을 열렬히 환영했다. 마르크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를 파괴하여 자유의 제국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위한 “폭력을 정당화했다.” 마르크제는 이 “부자유의 단계”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제 등이 주장한 표현의 자유는 자신을 진영만을 위한 표현의 자유였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젠더 페미니즘과 무정부주의적 쿼어 이론, 동성애 운동 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워엘리트인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1956-)도 1997년경 자신의 주장이 소수일 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다가 제도권으로 긴 행진”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표현의 자유를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서 제한한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다.

2. 문화마르크시즘은 차별금지법의 대상인 주변인 그룹(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흑인 등)을 새로운 혁명주체로 천명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문화마르크시즘의 오랜 전

략과 기획인데, 차별금지법이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주변인 그룹(성소수자, 여성, 흑인, 장애인 등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새로운 혁명주체로 인식되어 진다. 이러한 입장은 21세기 대한민국 좌파진영에서 최근 많이 학습되어지고 있는 ‘좌파 포퓰리즘’(Left Populism)을 주장하는 정치철학자 샬랑 무페(Charlante Mouffe)의 고전적 저서 헤게모니와 사회주의의 전략에 잘 나타나 있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제도권의 긴 행진’을 통해서 권력과 헤게모니를 장악한 학생운동권이 장 자크 루소와 마르크제의 가르침대로 ‘자유의 제국’(공산주의)의 전 단계로서의 ‘부자유의 단계’를 위해서 차별금지법과 그 새로운 언어집결인 정치적 올바름(PC)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람시(Gramsci)의 헤게모니론과 문화마르크시즘 전략을 계승하는 샬랑 무페의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이라는 책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문화마르크시즘의 전략과 기획이다.

이들은 전략으로서 지금까지 사회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던 주변인 그룹들을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 내세우면서 이제부터는 이들의 차별받은 인권이 보호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 흑인,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금지지는 지극히 당연하다. 이들은 소수자로서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여기에 동성애라는 성도적죄를 인권 범주에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차별대우를 받은 소수자 그룹으로 동성애자들을 내세우고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3.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은 영국 보수정차철학자들이 반대한 사회주의적 법률혁명이다.

21세기 에드먼드 버크(보수주의 정치철학의 창시자)로 평가되는 영국의 대표적인 정치철학자 로저 스카터턴 경(卿)(Sir Roger Scruton, 1944-2020)은 최근의 영국 브렉시트를 유럽인권법원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저항으로 소개하였다. 그는 유럽인권법원(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이 탐다운 방식으로 강제하는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등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질서수립을 위해서 이루어진 개인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스카터턴 경은 유럽인권법원에서 말하는 차별금지 개념은 다분히 사회주의적 개념으로서 1948년 유엔총회가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이나 1689년 제정된 영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나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법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영국의 법 전통은 갈등해결을 위해서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탄생한 법이지만, 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것은 탐다운(Topdown) 방식으로 법이 먼저 존재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한다. 스카터턴 경은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자유주의(보수주의) 전통에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한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연합(EU)과 유럽인권법원의 탐다운 방식의 법률혁명 시도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는 법률혁명 시도의 대표적인 예로서 탐다운 국가페미니즘인 젠더 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적 차별금지법을 지적한다. 로저 스카터턴은 사회주의적 차별금지법에 저항하면서 존 로크가 강조하는 개인의 주권과 자유의 제

발견을 강조한다.

로저 스카터턴은 2016년 영국 런던에서 “서구에서의 자유의 위기”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도 유럽연합(EU)에서 수용하는 민족국가 위에서 탐다운 방식으로 강제되는 젠더 이데올로기, 차별금지법,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 정치적 올바름(PC), 그리고 새롭게 사회병리학적으로 고안된 호모 포비아와 이슬람 포비아 개념에 대한 “비선적인 공포”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스카터턴은 이러한 민족국가의 주권과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와 같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영국 브렉시트의 정당성을 정치철학적으로 변호한다.

4.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차별금지법의 이론적 근거인 젠더 이론이 남녀의 차이를 부정하는 인류학적 혁명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2년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젠더 이론이 “인류학적 혁명”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9년 6월 11일 바티칸은 공식문서를 통해서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 혁명으로서의 젠더-이데올로기를 비판했다.” “ ‘차별금지’(Nichtdiskriminierung)’라고 유행하는 개념은 지주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은폐하고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자연적 상호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이 문서는 선포했다.

바티칸은 이 문서를 통해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학교와 교육기관에 도입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 문서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상대주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 혁명’뿐 아니라, ‘법률적 혁명’(juristischen Revolution)을 통해서 강제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수많은 젠더들을 만들려고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창조질서를 부정할 뿐 아니라, “하나의 추상물로서의 인간”(Menschen als eine Art Abstraktion)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바티칸 교육국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성 정체성이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심리치료적 조치”를 추천하고 있다.

8면 오른쪽 하단으로 이어집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1 전국 여교역자국



정혜원장 조종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교회



고문 정부영 목사
대림별교회



자문 한순님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임원단

전국지부장



예배부장 김장순목교회
조병희 목사



선교부장 최복교회
김순자 목사



복자부장 진리교회
이복순 목사



봉사부장 군영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홍보부장 대전대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재정부장 성경교회
최정희 목사



행정부장 추계교회
김찬애 목사



기획부장 일산별교회
조영란 목사



행사부장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친교부장 순복음빛교회
조은혜 목사



서울중부지방회 지부장
시랑과별교회 홍현자 목사



서울중앙지방회 지부장
예수영기교회 정애나 목사



서울남부지방회 지부장
순복음사랑교회 이현옥 목사



경기지방회 지부장
은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경기중앙지방회 지부장
행복순복음교회 김경순 목사



경기남지방회 지부장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표현자 목사



경기북지방회 지부장
풍성한생명의교회 서석자 목사



일산지방회 지부장
순복음평강교회 실수자 목사



대전지방회 지부장
목자교회 김희시바 목사



충북지방회 지부장
늘평안교회 서명란 목사



충남지방회 지부장
예수사랑교회 한정숙 목사



충청지방회 지부장
행복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경남지방회 지부장
새계로교회 정금자 목사



영남지방회 지부장
순복음문예교회 이순애 목사



부산지방회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김경옥 목사



부산동지방회 지부장
순복음복있는교회 황연선 목사



광주지방회 지부장
은혜의교회 김정순 목사



호남지방회 지부장
순복음동산교회 정복례 목사



인천지방회 지부장
은혜의교회 김연숙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2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2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1. 8. 31(화)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2.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3.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4.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5.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6.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7.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8.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9.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1. 8. 31(화)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2.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3.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4.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5.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6.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7.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8.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9.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김영준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의 효능

- 1) 폐활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 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 타식폴리인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 호호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 사포닌 : 면역력 증가
6) 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 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 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 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 10) 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중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경북기독교총연합회 주최 독도평화기도회

‘독도 평화기도회’ 개최, 3일간 울릉도와 독도에서

설교 배진기 목사-일본은 독도 분쟁화 계략 그만두어야
(사)경북기총 신재영 회장 차별금지법 저지, 한미동맹 강화, 종전선언 반대

경북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신재영 목사) 임원 24명은 지난 11월 17(수)~19(금)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찾아 ‘독도 평화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도회는 코로나 19와 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런 국가의 안정과 국민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독도를 사이에 두고 여러가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평화로운 관계 정립을 위해 준비했다.

경북기독교총연합회 주최, 경북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포항안디옥교회 협찬으로 개최된 이번 기도

회는 포항에서 크루즈선을 타고 아침에 울릉도에 도착해 울릉군에서 제공해준 행정선을 타고 독도에 접안해 독도에 첫발을 내딛은 회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감격하며 환호성과 함께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독도는 특별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행사도 이철우 도지사의 협력 이 큰 도움이 되었다. 독도는 날씨 관계로 년중 40여 일 정도만 입도를 허락할 정도로 기상이 큰 변수를 차지하는데 다행히 날씨가 너무 좋아 쉽게 입도를 할 수 있었다.

기도회 장소는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 일반인들은 올라 갈 수 없는 전망대에서 열렸다.

예배는 경북기총 대표회장 신재영 목사의 인도로 김재석 장로의 기도, 최기목 목사의 성경봉독, 예하성 중경총회장, 경북기총 중경 대표회장 배진기 목사(안디옥교회 당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배 목사는 시 121:8 말씀을 본문으로 ‘지키시리로 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정치는 엉망이었지만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세계 경제 강국을 이룰 수 있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드시면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아직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기회만 되면 사사건건 사비를 걸어오는 국가가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분명하다. 일본은 더 이상 생트집을 잡아 독도를 분쟁화 시키려는 계략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이관영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정우 목사가 ‘경북 발전과 도정을 위하여’, 안상훈 목사가 ‘독도수호를 위하여’, 김대원 목사가 ‘경북 복음화를 위하여’, 김성철 목사가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하여’ 각각 기도했다.

김길동 목사의 구호제창 후 설정수 목사의 축도로 울릉도 정상에서의 기도회를 마쳤다.

신재영 목사는 이와같은 행사를 통해 “경북기독교총연합회의 성경적 가치를 회복하고 바닥으로 추락된 한국 기독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임원들은 독도 평화기도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연중행사로 이어가자고 했다.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상임회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고문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신상우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식 목사, 연유희 목사
자문위원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고재권(아산경찰서장), 황재만(아산시의장), 강희복(전 아산시장), 박성기(U1대학교 교수)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본부장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
총무	차추병 목사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공동회장	진등용 목사, 노선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혁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지도위원	박차영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백현기 목사, 김준호 목사, 김성구 목사
부회장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장현원 목사, 정병한 목사, 윤돈상 목사, 이덕희 목사, 김성권 목사, 광익구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의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정환 목사, 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송화섭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안홍규 목사, 고영기 목사, 박성화 목사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
총무	차추병 목사
서기	정수희 목사
회계	곽인숙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상임총무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김중권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안상욱 목사, 안준호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오세한 목사
후원회 회장	한상문 장로
후원회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자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석경례)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울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차별금지법 전광판 광고는 성범죄 위험 경고

크로스드레서 혹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인권은 유린당해도 되는 것이며,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여장 남성 숙대여 화장실서 검거
진정행동등을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전국 506개 단체 연합)은 최근 논란이 된 차별금지법(평등법) 전광판 광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광판이 전달하는 메시지 효과는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아닌 차별금지법(평등법)으로 인해 성소수자의 옷을 입은 성범죄자에게 프리패스를 열어주는 위험성을 대중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6월 14일, 김마리 가발에 분홍색 후드티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여장을 한 남성이 숙명여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해당사진 참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범죄를 노리는 성도착자(성범죄자)가 성소수자라고 우길 시에도 이를 검증하기 어렵기에 여성들은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송파구청이 진평연 광고를 안 내릴 경우 전광판 광고하기를 취소하겠다고 광고회사에게 협박을 가했다고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적용상의 주

의)에 따르면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으므로 전광판 광고를 혐오표현으로 해석하여 금지하는 것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송파구청에서 전광판을 내리도록 조치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법률상 근거가 없는 독단적인 행동이다. 크로스드레서 혹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의 인권은 유린당해도 되는 것이며,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오히려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경악할 일이다. 이에 따라 진평연은 송파구청의 직권남용 및 부당한 자유 탄압에 대하여 형사고발, 행정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광고사와의 계약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폐해를 알리는 전광판 광고를 서울 주요 지역에 게시하였다. 그런데 진평연의 적법한 광고를 소위 성소수자 혐오로 몰아세운 편향적인 언론보도가 나간 후, 약속이나 한 듯이 송파구청 광고물관리팀에 조직적인 민원제기가 쏟아졌다. 이후 송파구청으로부터 해당 광고를 내리라는 부당한 압력이 전광판 광고 운영사에게 가해지기 시작했다. 광고 운영사는 차별금지법 반대 광고가 이미 수차례 신문사 등을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근거를 제시하며 광고의 적법성과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 담당 공무원은 광고를 내리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가하며 강압적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이는 광고 운영사가 구청으로부터 광고 사입 허가를 취소당하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불모 삼아 저지른 전형적인 갑질 행위이다. 이는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송파구청의 불법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광고주인 진평연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광고 운영사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 말살 폭거이다. 정병 송파구청은 동성애 및 성전환의 반대를 억압하는 세력(이

하, “LGBT 독재 세력”)의 부역자 역할을 할 것인가? 진평연의 광고에 대한 LGBT 독재 세력의 조직적인 테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타 지역의 진평연 광고를 공격하기 위해 종교구청 등 관공서에 전화 폭탄을 통해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또 다른 광고 운영사 영업팀에 온종일 전화 폭탄을 돌려서 일체의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팀장과 담당 직원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켰다고 한다. 이들의 전화 폭탄 테러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더하여 관공서로부터 민원제기 통보를 받았기에, 영업 허가 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광고 운영사는 진평연의 모든 전광판 광고를 내리는 결정을 아쩔 수 없이 내리게 되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새라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진평연 광고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니 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 과연 현재의 대한민국은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이미 LGBT 독재 세력에 휘둘려 자유를 탄압하는 신 전체주의 국가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전광판 광고 사건은 군함발로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악몽을 떠오르게 만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의 안철수 후보 발언과 최근 모 제주의원의 발언 등을 혐오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처럼 인권위가 혐오 프레임으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작정한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인권위가 앞으로도 계속 자행한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차라리 사라지는 것이 낫다고 본다. 송파구청은 옥외물광관리법의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광고 금지 규정을 언급하지만, 이는 진평연 광고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LGBT 독재 세력의 선동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본다. 지난 7월 미국 LA의 위스파에서 성범죄 전과자인 남성이 트랜스

젠더라고 주장하면서 여탕에 들어가 나체 상태로 자유롭게 돌아다니 적어 있다. 캘리포니아주 차별금지법을 이용하여 발생한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과 10월 미국 버지니아주 라운드 카운티의 고등학교에서 자신이 젠더 플루이드라고 주장한 15세 남학생이 차미를 입고 학교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15세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두 차례나 발생했다. 버지니아 교육청의 젠더정책체에 따른 화장실, 탈의실 사용 차별금지로 인해 야기된 예견된 결과였다. 진평연의 광고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여성 대상 성범죄 발생 실제 사건을 묘사한 것일 뿐, 인종차별도 아니고 성차별도 아니다. 오히려 여성 인권 보호를 요구한 적법하고 정당한 광고이다. 이에 대해 소위 혐오·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폭거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외국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LGBT 독재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입법된 후에 얼마나 더 무참하게 국민을 탄압하며 자유를 유린할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이번 전광판 광고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LGBT 독재 세력이 주장하는 소위 혐오 표현이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성적지향 및 성전환 정체성에 대한 일체의 반대와 비



판,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술책임을 만천하에 밝히 드러낸 것이다. 진평연은 송파구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공권력에 의한 자유 말살, 언론 탄압의 폭거와 만행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 및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선언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정권과 괴뢰를 써온 전통을 계승하여 LGBT 독재 타도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1년 11월 30일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복음법률교회,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비인권여성연



성명서
혐오 프레임으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송파구청, 국가인권위원회, LGBT 독재 세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 세 번째 NEW마가복음 출간

NEW마태복음, NEW누가복음 이어 NEW마가복음 완성

최근에 기존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의 수많은 오번역을 바로 잡은, 박경호 원장이 박경호헬라어번역 성경 New마태복음이 9월에 출간되었고 연이어 10월에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 New누가복음이 출간되어 많은 목회자들의 관심 속에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 박경호 헬라어 번역성경 New마태복음과 New누가복음은 기존에 번역한 복음서와는 달리, 공인성경 본문에 해당하는 스테판(1550)헬라어 사본을 번역한, 원어의 어원을 파악하고 일대일 직역 방식으로 번역한 국내 최초의 번역 성경이다. 모든 한글 및 영어 번역본은 헬라어 한 단어를, 문맥의 상황에 따라 여러 단어로 의역하지만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 New마태복음과 New누가복음은 원어를 한글 한 단어로 고정시키는, 일대일 직역 방식의 번역 방식이며, 20년의 끈질긴 노력으로, 완전 직역에 성공한 [전무후무한 성경]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 신학생, 일반 평신도들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독서로 주목받고 있는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은 마태복음을 주제별 12장으로 구분하고, 분장의 의미에 따라서 절을 만들고, 각 절에 제목을 붙임으로 이해하기 쉬운 새로운 성경으로서, 어린이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다.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 복음서 시리즈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NEW마가복음이 11월에 출간되어, 출판을 기다리신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한다. 마태복음의 메인 주제인 계명순종은 거듭남으로 인도하기에 마태복음의 주제를 계명순종이라 한다. 누가복음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 구원으로 인도’라는 주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책이며, 최근에 출판된 마가복음은 구원을 받았더라도 구신으로 인해 타락하여 구원을 잃게 될 수 있기에 그 구신을 추방하여 구원을 잃지 않게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책이라 하겠다. 역사 박경호 원장(히브리어&헬라어번역원 원장)은 20년 넘게 원어 번역에 매진한 원어 성경 연구가다.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 후,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나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많은 오번역들을 발견하고서 성경 원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 원어성경 번역에 매진하고 있다. 박경호



원장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영역으로서 번역을 진행했으나, 현재는 전 세계 성도들을 위하여 원어에 가장 가까운 성경을 만들고자하는 사명자로서의 영역으로 번역을 진행하고 있다.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 NEW마태복음과 NEW누가복음과 NEW마가복음은 성경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은 헬라어 한 단어의 원래 의미를 발견하고 절의 내리, 1:1 대응 사전을 만들어 단어를 고정시키며, 그 고정된 단어로 모든 성경을 번역하다가, 만약 새로운 성경구절에서 문맥에 어울리지 않거나, 의미상 오차가 발생하면, 이미 1:1고정된 단어를 새로운 단어로 교체시켜, 모든 성경구절에서 의미가 부딪히고 정확하게 적용되게 하여, 성경의 원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제까지의 모든 번역 성경은 수 십 명이 성경번역에 참여하여, 원어 한 단어가 적게는 5개 많게는 수

십 개의 단어로 번역되었기에, 성경이 말해주려는 진짜 의미를 알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독자들의 입장에서 지의적인 성경해석으로, 결국 ‘성경해석의 오류’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는 것이다. [박경호히브리어&헬라어번역성경 1:1한글대입]은 최초로 가장 완벽해 1인 번역 성경이며, 완벽해 원어 그대로 번역되어 성경사본과 동일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후에, 박경호히브리어번역성경 모세오경, 역사서, 사기서, 선지서, 박경호헬라어번역성경 4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을 순차적으로 출판할 계획이며, 박경호히브리어&헬라어 66권의 성경을 번역한 후, 박경호히브리어&헬라어번역성경을 영어 및 전 세계 자국의 언어로 번역 및 출판하여 복음전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 번역성경의 구매 또는 기타 문의는 010-8595-5725, dycj5725@naver.com

5면에서 이어짐

5. 유럽연합의 차별금지법은 인권법 명목으로 '문화전쟁'을 위한 '무기'로 전락했다. 로저 스카버턴 뿐 아니라, 20년 동안 영국의 대표언론인 가디언(Guardian) 지 편집부 요직과 BBC의 정치적인 페넬로프 활동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저명한 여성 언론인 멜라니 필립스(Melanie Phillips)도 미국 '로퍼' (Lawfare) 재단에서 "인권법을 납치하기" ("Hijacking Human Rights Law")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인권법의 조직"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유럽연합의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서 주장하는 인권법과 인권분화는 일종의 "문화전쟁을 위한 무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즉 유럽인권법원에서 말하는 인권개념, 인권법, 인권문화, 차별금지법은 사회주의적 "문화전쟁의 무기"로 '무기화'(weaponization)되어 버렸다고 그녀는 바르게 비판한 것이다.

21세기에 약자, 희생자, 소수자, 주변인 그룹에 대한 정당하고 적정하고 적절한 기독교적-민주주의적 변호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주의적-전체주의적 방식으로 그 희생자(victimhood)를 과잉되게 '무기화'해서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희생자 이데올로기(victim ideology)와 그 희생자 문화(victimhood culture)는 21세기 사회과학에서 새롭게 비판적으로 분석되고 경각되고 있는 화두(話題)다. 사회주의적 지향이 강한 유럽인권법원의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인권개념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인권법을 "문화전쟁적 무기"로 '무기화'해서 정치적이고 사법적으로 탄압하고 박해하는 수단으로 쉽게 전락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그녀는 바르게 비판했다. 평등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이미 담겨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주의적 차별금지법을 강제하려는 저의에는 문화마르크스즘의 기획과 전략이 존재한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가치인 자유의 가치(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을 배신하고 침해하고 억압한다면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포괄적 평등기본법을 추가로 제정해서 강제해야 하는 것인가?

6. 한국사회는 문화마르크스즘의 전략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올바른 전략으로 막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문화마르크스즘은 기획과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기획과 전략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안의 기획과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차별금지법의 추진을 위한 올바른 이론적 토대와 전략을 마련해야 하겠다. 문화 마르크스즘이 오랜 기간 동안 펼쳐 온 결과로 나타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들의 전략을 드러내면서 단기적으로는 이 법의 제정이 가져올 폐해를 널리 알려져 사회적인 반대 여론을 확산해야 하겠다. 이들이 언론과 영화 등의 다양한 문화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있으므로, 우리들도 다양한 문화매체를 통한 강력한 대응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7. 한국교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제도적으로 침투하는 문화마르크스즘을 막아내야 한다.

서구교회는 동성애를 인권 차원으로 오인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허용함으로써 법 통과 후 이 법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황폐시키고 교회의 영적 상황을 고갈시키고 있다. 독일의 대표적 지성인인 보편사 신학자 판넨베르그(Wolfgang Pannenberg 1928-2014)가 천명한 바같이 동성애를 수용하는 교회는 사도적 예수 그리스도교회라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동성애는 전권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9-10).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거부하고 이에 거부하는 운동에 나서고 있다. 다행한 일이다. 한국교회는 오늘날 지구촌 사회에서 지구촌 교회와 사회를 향하여 진리와 윤리의 촛불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1월 29일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12월 말까지 전국 322곳에서 자선냄비 운영

한국구세군(사령관 장만희)이 지난 12월 1일(수)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2021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개최하며 자선냄비 거리 모금의 시작을 선언했다. 올

해 자선냄비 거리 모금은 '거리에서 올리는 희망의 종소리(Ring Together!)'라는 주제로 이날부터 전국에서 한 달여 간 진행된다.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4주년 세미나

한국교회봉사단,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생태적 회심 창조신앙 회복

한국교회봉사단(대표회장 정성진, 한교총)과 기독교환경운동연대(상임대표 양재성, 기환연)는 지난 2007년 발생한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4주년을 맞아 지난 12월 1일(수) 충남 태안 의항교회에서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사례를 통한 기독교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광희 목사(의항교회)의 인도로 진행된 1부 기념 예배에서 정성진 목사는 "서해안 유류 피해 극복을 위해 당시 8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으로 몰려와 서해안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면서 "우리가 하나 돼 기도하고 하나 돼 봉사하면서 해안의 재앙을 막아낸 것처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

후재앙도 이겨낼 수 있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진형 목사(기환연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세미나에서 김중생 목사(한교총 상임이사)는 "31 운동 이후 한국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로 평가되는 서해안 살리기 운동으로 태동한 한국교회봉사단이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사건을 신학화하고 생태와 봉사가 함께하는 삶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표한 양재성 목사(기환연 상임대표)는 "서해안 유류피해 현장은 한국교회가 생태적으로 회심할 수 있는 원점이었다"면서 "기후재난 극복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생태적 회심을 통해 창조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거어르신 초청 추수감사절 밥사랑잔치

월드뷰티핸즈와 해돋는마을 공동주최

엘드림노인대학강당에서 쪽방촌과 독거어르신 및 거동 불능한 독거어르신을 섬기는 구호개발NGO(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터 신한대 뷰티헬스사 이언스교 교수)와 사단법인 해돋는 마을(이사장 장현일, 신생령나부교회 목사)이 지난 11월 24일(수) 공동주최한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위해 '추수감사절 밥사랑 잔치'를 갖고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사)해돋는 마을 이사장 장현일 박사는 "무척 추운 오늘, 코로나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소외되고 외로운 어르신들께, 주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보내 주셔서 사랑의 대제식과 선물을 전달 할 수 있어 협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월드뷰티핸즈 회장 최에스터 교수는 이번 사랑의 선물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삶에 용기를 갖고 사시기를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비오신코리아(주) 강종욱 대표



의 후원, 마포구 대흥동 이연우 주민자치위원장의 선물과 이민석 의원, 최재환 복지협회의장, 전정미 자원봉사센터장 김영대 복지팀장이 자원봉사로 참여

해 선물과 대제식을 전달했다. 이날 장현일 이사장은 최세진 영양사와 최세연 사무국장(해돋는 마을) 등이 참석해 어르신을 섬겼다.

제6회 독서토론프레젠테이션 대회

나사렛대, 장애·비장애 학생 함께 참여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는 지난 11월 24일(수) 오후 7시 나사렛관 패지홀에서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제6회 독서토론프레젠테이션 대회'를 가졌다. 나사렛대학교 도서관은 독서를 통해 학생

들의 독서문화 확산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장애·비장애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40여 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심사위원평가 이외에도 재학생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 10여 명이 심사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대상에는 'Nazareth AD Fontes' 팀, 최우수상에는 '해너지 팡팡' 팀 그 외에도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이 각각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총 650여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위드코로나 시대 코비행전 예수 향기의 작은 꽃송이들(사도들)

정보화시대는 예측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의학 발전을 이룩하고 고품격 시대를 촉발시켜 고령인구 증가를 불러온다. 또한 기술발달은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해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간의 필요성을 저하시키는 반면에 개인정보의 유출로 안전이 파괴당하게 된다.

필자가 예전하건대 머지않아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경제 격차를 더욱 가속시켜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종교적인 문제와 인간의 참 자유마저 억압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인류 문명사의 극적인 한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의 현상을 진리의 법정에 세웠다.

지금은 지구촌 글로벌시대와 정보화시대로 대변되는 특징이 있다. 즉, 가치의 전환으로 정의된다. 가치의 성격상 단일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던 동질적인 가치보다 다양성과 특수성에 호소하여 이질적인 가치를 더 중시하는 시대적 변화이다. 그 한 예로써 동성애자들마저 존중 받고 인정받게 되었다. 이것은 정보화, 민주화, 팬데믹 시대의 흐름으로 대두되고 있는 전 세계적 문화 풍조이다.

코로나19는 지구촌 각국에 걸쳐 수많은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 설령 완치가 된다 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육체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갇혀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사람들의 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구조적 질병이다. 이른바 또 다른 사회적 질병인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 인간접촉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된다. 이는 '전염'을 의식한 불신에서 발생되는 심각한 수준을 보여준다. 즉 '거리두기'의 즉

면을 넘어 이제는 '비밀두기'이다. 황량하고 삭막한 사막 수준 사회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적으로는 대면 수업이 사라지고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이나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청각 수업으로 대체한 출석이 늘고 있다. 부안해서 한국교회는 대면 예배가 코로나19를 가속화시킨다는 이유로 종교적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각 교단 교회들은 재정적 파탄과 교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급감하는 부정적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되었던 각국의 파송 선교사들이 자국인 보호라는 이유로 본국으로 강제 추방당했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코로나19는 현재도 시간이 흐름수록 변이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주변 현실은 제4차 문화산업혁명을 통과중이다. 특히 운송수단의 발달은 위드코로나의 무늬를 입고 최근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을 불러오고 있다. 이것뿐만이 신종 '오미크론'과 같은 악성 세균은 정자 전 세계로 급속하게 전파될 것이고 수많은 사상자를 불러올 것이다. 한편 필자는 팬데믹의 정체를 소환하고 한국교회의 처한 현실에서 미래 세대와 영혼 구원을 고민하였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자성을 무계삼아 복음 현장을 누렸던 사도행전적 신(新)모태행전(Covid 19-21, Acts)이 현재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날 사도시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마주해서 행전 복음의 문화화, 말씀의 신앙화, 교리의 실천신학을 피와 땀과 눈물로 보여주었던 이들이 있었다. 이른바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와 스테프들이다. 필자는 이 한란의 시대를 짊어진 한국교회 사도행전의 주역들이라고 밝히는데 감히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사편 71편 18절 중략)

"우리가 이들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사편 78편 4절)

비전교회 홍종국 목사
(성결교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Ph.D)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염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상대방 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cy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제4회 예장총연, 제23회 예장연 정기총회 개최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하자’



이광용 목사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코로나 발미 한국교회 압박, 정부의 종교의 자유 위반 행위 적극 대처한다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지난 11월 29일(월) 오전 11시 기독교

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제4회 예장총연, 제23회 예장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낸 회원들을 격려하고 말씀중심의 사역을 통해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울러 예장총연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회원교단이 연합하여 더욱 활발한 연합활동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나라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면적인 대면예회 회복을 위해, 코로나를 발미로 한국교회를 압박하는 정부의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하자’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날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상임회장 변권능 목사의 사회, 예장합동동신 총회장 원동인 목사의 대표기도, 예장합동보수 총회장 차요한 목사의 성경봉독, 엄마뜻똥 목사의 특송, 예장합동전국연합 임원들의 특송, 예장보수합동 연합방송노회 일동의 특송,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의 설교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계 3:14-22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



의 경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고 잘못된 신학을 바로 세우고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예장총연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예장연합장신 총회장 김남식 목사, 기독교발전 협 이사장 이종택 목사, 고분 김수영 목사의 축사, 특별기도로 ‘국가와 통일을 위해’ ‘대통령과 정계지도자들을 위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교회 말씀개혁과 성령충만을 위해’ ‘WCC와 이단

패를 위해’ ‘사)예장총연 화합과 성령충만을 위해’ 김병선 목사, 지광식 목사, 김태지 목사, 오선미 목사, 손은우 목사, 하석수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의 인사말에 이어 자문위원 민철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의 인도로 총회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정관에 의거 인선위원회에서 임원진을 유임키로 결의했다.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For your Healthy Life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은 지난 1월 25일(금) 한의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로 입점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교단 부산지방회 증경회장 한경원 목사와 고영권 목사 등이 참석하여 축복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산하 지방신학교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AG
ASSEMBLIES OF GOD



(학장 한 명 접 목사)

에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051)808-3927
- F A X: 051)581-0198
- e-mail: yhsbs3927@hanmail.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에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041)567-3004
- F A X: 041)575-3171
- e-mail: changdean@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에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062)952-7004
- F A X: 062)953-5004
- e-mail: sm1004@daum.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에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043)274-2265, 273-2211
- F A X: 043)237-2705
- e-mail: ho-gi@hanmail.net

AG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나의 나 된 것은...

예전에 나는 내가 싫었습니다.
원치 않는 내 모습 볼 때마다
화가 났고 부끄러웠고 숨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내게 너무 커보였고
나를 향해 조여 오는 듯하여 답답하였고
원망과 불평과 비교 속에 마냥 작아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초라한 죄인임을 깨달은 그 날부터
성령님은 새로워진 내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러워할 필요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유보다 크신 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알았으니까요

내가 본 나의 모습도...
타인이 본 나의 모습도...
진정한 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내가 진짜 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내가 좋습니다.
원치 않는 모습이 지금도 내게 보이지만
주께서 만들어 가실 내 모습을 바라보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용기내도록 손을 잡아 줍니다.

커 보이던 세상이
복음 앞에 놓이니 작아 보이고
영혼 사랑의 마음 가슴에 담으니
세상을 향한 내 작은 마음은 터질 듯 충만해집니다.

예수밖의 내 모습과 예수안의 내 모습은
너무나 분명한 획을 그으며
삶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어지는 기적이 되어
나의 나 된 모습을 보여 줍니다.

고전 15:10, 고후 5:17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다

한국교회 최초 목사안수자료집 출간

교회사적과 한국 근대사에도 큰 의미 있어

한국개신교회 최초 목사 안수자인 김창식·김기범 목사 안수 120주년 기념사업자료집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교회)에서 11월 24일 오후 2시 감리회관 16층 본부교회에서 갖고 한국인 최초 목사 안수자의 역사적·신학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이회와 협력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김창식·김기범 목사에 대한 발표와 논평은 홍민기 박사(한교총 문화사업 책임연구원)와 이원재 목사·김홍규 목사가 각각 맡았다. 최병현 목사에 대한 발표와 논평은 이덕주 박사(감신대 은퇴 교수)와 천영태 목사(정동제일교회)가 각각 맡아 세 분 목사에게 주는 의미도 있다. 한국 감리교 뿐만 아니라 개신교회 전체의 신학교육과 목회자 양성과정을 한층 발전시킨 한국교회 큰 보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연회 감독의 모두인사, 김창식·김기범 목사와 사정상 1년 넘어 안수 받은 최병현 목사에 대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김창식·김기범 목사에 대한 발표와 논평은 홍민기 박사(한교총 문화사업 책임연구원)와 이원재 목사·김홍규 목사가 각각 맡았다. 최병현 목사에 대한 발표와 논평은 이덕주 박사(감신대 은퇴 교수)와 천영태 목사(정동제일교회)가 각각 맡아 세 분 목사에게 주는 의미도 있다. 한국 감리교 뿐만 아니라 개신교회 전체의 신학교육과 목회자 양성과정을 한층 발전시킨 한국교회 큰 보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감 선교국 총무 오일영 목사 사회로 진행된 2부 출판기념회에서 이철 감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인 최초의 목사 안수자가 감리교인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갖는다. 2021년이 최초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2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 자료집은 이 시대 목회자들에게 주는 의미도 있다.”라고 밝히고, “한국 감리교 뿐만 아니라 개신교회 전체의 신학교육과 목회자 양성과정을 한층 발전시킨 한국교회 큰 보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설

종전선언에 목매 때가 아니다

미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강대국들이 분리 돼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일이 없는 나라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이 없는 나라가 핵을 가진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경제든, 군사력이든 패권 경쟁이 치열한 한반도에 있는 나라다.

6.25전쟁 이후 나라가 남북으로 분리되기 전에는 조선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수도 없는 침략 속에서 마치 속국 같은 위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조들과 온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외교 국력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글로벌 시대에서 목불장군은 없다. 초강대국 미국도 목불장군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고 속에서 동맹 강화를 부르짖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에 여·야의 대선후보들을 보면서 한 편으로는 안심이 한편으로는 우려가 생겼다. 어느 후보는 일본을 현 정부처럼 토착외국이라고 보는가하면 어느 후보는 동반자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과 친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원수처럼 처

을 지면서 살아가는 안 될 일이다.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이어가면서 국내적으로는 안정된 정치 현실을 만들어야만 한다. 국가간의 대립은 공산주의가 대두되기 이전에도 존재하였고, 공산주의가 몰락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분쟁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지도자의 상황인식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어 걱정이다. 중국을 방분한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제 북한의 종전선언 동침을 실행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났다. 우리 국립외교원장은 미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종전선언이 안 된 채 기계 되면 내년 여름은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법한 발언을 했다. 지금은 종전선언에 목매 때가 아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한·미동맹 강화만이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면 가장 큰 피해는 여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차별없이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국회에 여러 건 입법 발의한 상태이며, 심지어 대통령도 느닷없이 ‘차별금지법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법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여성들을 보호할 목적의 광고물까지 중단시킨 것은, 차별금지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역사별한 사례가 될 것이다.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의 5에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적 내용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정도이다. 반면에 제2조 2에서는 ‘국민의 정치 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유럽처럼 인종차별이나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표

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성소수자(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내용도 아닌 옥외광고물을 민원 때문에 중단시킨 것은 법률에 어긋나는 잘못이다.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없음에도 이런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만약 차별금지법이라도 만들어지면 얼마나 큰 인권 독재’를 하겠는가?

앞으로 만에 하나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만들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여성일 것이다. 남성 가운데 성소수자라는 사람들이 어느날 여성으로 둔갑하여 여성들의 활동 무대로 침입해올 때, 그에 따른 혼란이나 피해는 심각할 것이다.

지자체가 여성들의 인권과 신변 보호를 해주는 못할정경, 시민 단체가 낸 정당한 광고물을 중단시킨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며, 이를 즉시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도 없는데, 명령(仁靈)의 그림자로 국민의 권리를 막으려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 남용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동목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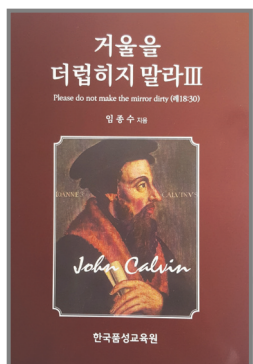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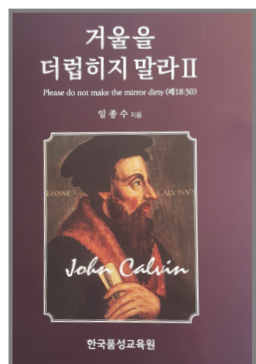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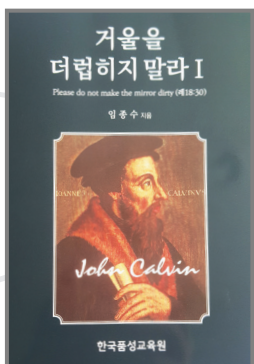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든 어떤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현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정자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